무기징역도 이벤트를 하나요?

202310791 김선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모범수로 20년 동안 지내다 가석방으로 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흉악범들은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는데 이들이 다시 사회에 진출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두려움을 겪고 있고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 할 뿐더러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다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고형은 사형이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2016년 이후에는 사형이 확정된 판결이 아예 없다고 하고, 그나마 사형이 확정된 판결도 1997년 12월 이후에는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26년째 사형의 집행이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최고형은 실질적으로 사형이 아니라 가석방 있는 무기징역인 것이다. 법정에서 무기징역이 선고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나는 이들을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아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도 찬성에 대한 근거와 반대되는 의견을 반박하며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국민들의 지지와 피해자의 인권이다.
먼저 많은 국민들이 절대적 종신형 도입 즉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전국 만 18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찬반을 묻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87%가 찬성에 손을 들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모든 계층에 걸쳐 80%이상을 기록했다. 또 1994~2022년에 있던 여섯 차례 조사에서 모두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여론이 폐지론을 앞섰다. 이는 국민들은 처벌의 수위를 유지하는 것 이상 높아지길 원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적극 찬성하는 것이고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또 최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묻지마 범죄의 증가이다.
묻지마 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 자체에 이유가 없어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를 말한다. 물론 이런 부류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감옥에서 교화, 교정을 받고 사회로 다시 나오더라도 교화될 확률이 낮다 실제로 재범자의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묻지마 범죄 고위험군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예방은 못하더라도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를 운에 맡기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러므로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을 뿐더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다.

이전 문제 상황에서 말했듯 피해자들은 무기징역 수들이 다시 사회에 나오며 또 피해를 보고 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6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밤 9시쯤 동대문구의 거리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앞서 2019년에 피해자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 가석방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고 조금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출소 후 보복에 관한 기사를 많이 볼 수 있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모범수로 나왔다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 피해자가 숨고 피해자가 또 다시 피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야 하는가?

하지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반대하는 의견도 분명 존재한다. 그들은 주로 위헌과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한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구금되어 인간으로서 신체의 자유 등을 향유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가 존재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바로 다음 가는 형벌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될 건 없다.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존중하면 이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범죄자 얼굴은 모자이크로 가리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신상이 공개되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고 꾸준히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하지 않으며 신상도 공개하는 등 점점 완화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쪽으로 법도 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번 제도의 도입도 이렇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복역했고, 수형자의 개선갱생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런 까다로운 절차와 확실한 판단으로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범죄자의 인권 침해와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 받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국민들은 흉악범이 다시 사회에 나오는 것을 불안해 해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해 과반수이상 찬성하고 있다. 또 가석방이 되면 가해자의 보복 등을 피해자가 두려워하며 또 다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우리나라 법에 도입해야 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처분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살인 행위나, 계획적 살인 행위 등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범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해 인권 침해를 줄이고 더 확실하게 판단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범죄율을 조금이라도 더 예방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더러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적 안전을 확보해 많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고 특히, 흉악 범죄나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 사형선고가 인간 존엄성 측

면에서 판사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데 바로 오판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경우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도 줄어든다. 판사들이 범죄를 더 제대로 판단해, 죄질에 합당하는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경상시론]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경상일보, 2023.11.27. 00:10, 2023.11.28.일 접속,(https://www.ksilbo.co.kr)

'영구격리 필요 vs 인권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란…"보완책 필요", jtbc, 2023-10-23 18:07, 2023-11-28일 접속,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9222

'가석방 없는 종신형' 국민들은 찬성, 전문가는 찬반 갈려, 쿠키뉴스, 2023-08-19 06:00:27, 2023-11-28일 접속,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8140199

가석방 출소 후 피해자 보복 폭행한 60대 체포, 연합뉴스, 2021.05.28. 2023-11-28일 접속, https://tv.naver.com/v/20453282

묻지마 범죄 재발율 75%, 이상동기범죄 특별팀까지 꾸렸지만... side view 2023.05.25 2023.12.01 접속
http://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7